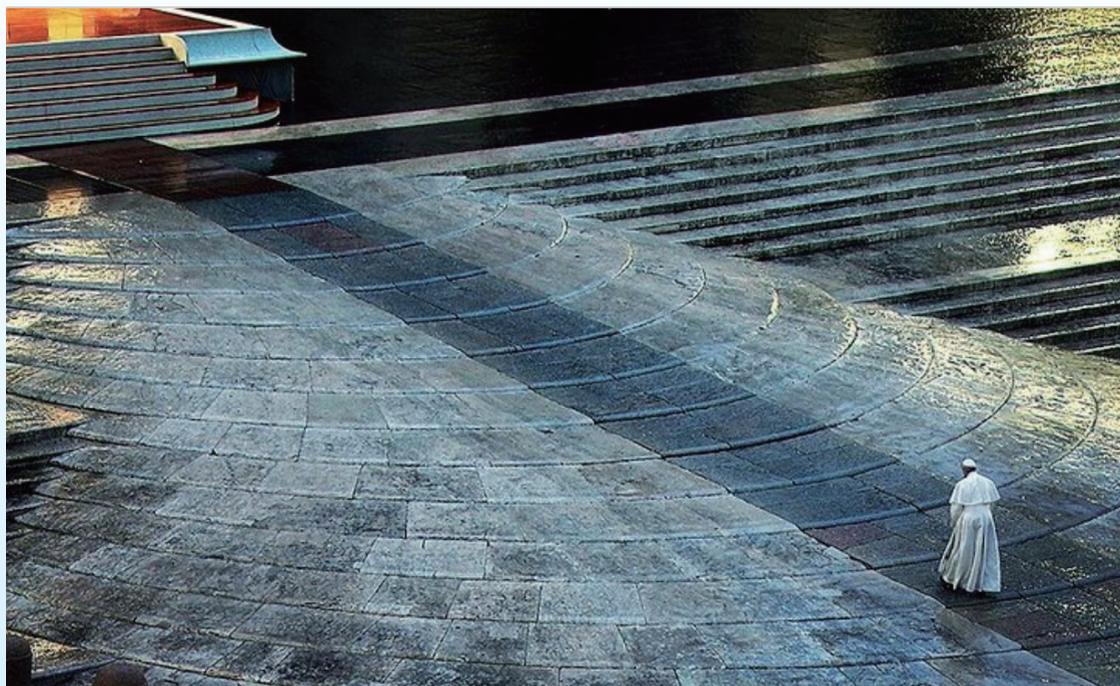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회칙

『모든 형제들』과 함께하는
사순시기 묵상집

『모든 형제들』 169항에
‘사회적 시인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 언어들의 창의적인 연결과 조합을 통해
한 편의 아름다운 시譜가 이루어지듯이,
우리 모두의 생각과 몸짓 하나하나가
형제적 연대로 연결될 때
하느님 뜻에 맞는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세상이라는
시를 만들어가는 ‘사회적 시인들’입니다.
세상이라는 시는
몇몇 사람들만이 시인으로 참여해서는 완성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시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회적 시인들’이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서로와 모두를 위해』 작가 서문



내용 출처

▣ 내용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모든 형제들』,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1.

매일미사,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2.

▣ 생각해보기

『서로와 모두를 위해』, © 2021 오지섭·박재신

▣ 영화 속 『모든 형제들』

『영화의 향기 with caff』, © cpbc

『문화와 사람』, ©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사진 출처

© Unsplash

© franciscus.insatagram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1요한 4,20)

“너희는 모두 형제다.”(마태 23,8)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과 같은 전 세계적 비극은 “우리가 모두 같은 배를 타고 항해하는 세계 공동체라는 인식을 삼시간에 효과적으로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 배 안에서 한 사람의 불행은 모든 사람에게 해가 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혼자 구원받을 수 없고 오로지 함께라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모든 형제들』 32항)

프란치스코 교황은 회칙 『모든 형제들』 안에서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들의 이기심과 무관심에서 비롯된 다양한 문제들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각종 심각한 현상들을 신앙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게 하면서 우리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나아가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이유와 방법을 배우고 묵상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말씀처럼 고통 받은 이웃을 못 본채 비켜가지 말고 사랑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2022년 은혜로운 사순절에 『모든 형제들』과 함께하는 사순시기 묵상집이 이기심과 무관심으로 병든 우리 자신을 성찰케 하고 이웃과 사회를 치유하는 작은 디딤돌이 되길 기원합니다.

**“지금 바로 매우 은혜로운 때입니다.
지금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2코린 6,2)**

2022년 사순시기를 맞이하며
사목국장 여인석



사마리아인(렘브란트, 1630)

『모든 형제들』과 함께하는 사순시기 묵상집 안내

■ 내용

- 『모든 형제들』의 주요 부분을 싣고 일부 문장은 내용의 자연스런 전개를 위해 본뜻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수정하였습니다. 내용 말미에는 교황 성하 회칙과 더불어 주님의 말씀도 함께 묵상해 볼 수 있도록 그 주에 해당하는 주일미사의 복음말씀을 구성하였습니다.
- 본문에 삽입된 사진들은 저작권 문제로 인해 무료 사용이 가능한 외국 작가의 사진들로 구성하였습니다.

■ 생각해보기

- 『모든 형제들』이 제시해주는 문제의식과 성찰을 우리가 사는 현재 세상의 구체적 사례들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시도한 『서로와 모두를 위해』에서 발췌하여 구성하였습니다.

■ 영화 속 『모든 형제들』

- 우리가 현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영화 소개를 통해 『모든 형제들』 속 문제 상황들을 직접 보고 묵상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실천하기

- 『모든 형제들』 속 핵심 단어와 문장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세상과 이웃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행동할지에 대해 성찰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십자가의 길

- 은혜로운 사순시기 동안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과 묵상을 통하여 주님의 수난과 죽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봉헌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을 구성하였습니다.



차례

<h3>I</h3> <h4>사순 제1주</h4>	1. 서문 모든 형제들 ^[1-8항] 6 1장 닫힌 세상의 그림자들 ^[11-55항] 7 2. 생각해보기 16 3. 영화 속 모든 형제들: 프란치스코 교황 18
<h3>II</h3> <h4>사순 제2주</h4>	1. 2장 길 위의 이방인 ^[56-86항] 20 2. 생각해보기 30 3. 영화 속 모든 형제들: 레미제라블 32
<h3>III</h3> <h4>사순 제3주</h4>	1. 3장 열린 세상을 상상하고 이룩하기 ^[87-127항] 34 4장 온 세상을 향하여 열린 마음 ^[128-153항] 43 2. 생각해보기 50 3. 영화 속 모든 형제들: 사마에게 52
<h3>IV</h3> <h4>사순 제4주</h4>	1. 5장 더 좋은 정치 ^[154-197항] 54 6장 대화와 사회적 우애 ^[198-224항] 62 2. 생각해보기 72 3. 영화 속 모든 형제들: 정직한 후보 74
<h3>V</h3> <h4>사순 제5주</h4>	1. 7장 새로운 만남의 길들 ^[225-270항] 76 8장 세상의 형제애를 위하여 봉사하는 종교 ^[271-287항] 87 2. 생각해보기 94 3. 영화 속 모든 형제들: 기생충 21
<h3>VI</h3> <h4>십자가의 길</h4>	1.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함께 걷는 십자가의 길 98

서문 모든 형제들

1. 모든 형제들(Fratelli Tutti). 이 말을 통하여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은 모든 형제자매에게 복음의 풍미를 지닌 삶의 형태를 제안하였습니다. 열린 형제애는 물리적 근접성을 뛰어넘어 출생지나 거주지의 구애 없이 모든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2.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쓰도록 제게 영감을 준 이 형제적 사랑, 단순함, 기쁨의 성인은,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에 관하여 새로운 이 회칙을 쓰도록 제게 동기를 부여합니다.
5. 저는 언제나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에 관련된 문제들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저는 이 문제들을 수차례 여러 장소에서 언급하였습니다. 이 회칙에 그 발언들 가운데 많은 것을 모아 더 넓은 맥락에서 성찰하고자 합니다.
6. 앞으로 나올 내용은 형제애에 관한 교리를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편적 차원과 모든 이에 대한 개방성을 다룹니다. 그리하여 갖가지 방식으로 다른 이들을 무시하거나 열외시키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말로만 국한되지 않는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의 새로운 꿈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 이 회칙을 쓰는 사이에 예기치 못하게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여러 국가들이 이 위기에 다양하게 대처하였지만 공동 협력에는 무력하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초(超)연결되어 있음에도,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들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든 파편화가 증명되었습니다.

8.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에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모든 이의 사이에서 형제애에 대한 세계적 열망을 되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1장 닫힌 세상의 그림자

부서진 꿈들

11. 역사는 퇴보의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극복하였다고 여기던 구시대적인 분쟁이 고조되고, 폐쇄적이고 격화되고 격렬하고 공격적인 민족주의가 되살아납니다. 서로 다른 이념으로 가득 찬 국민과 국가의 통일에 대한 개념은 여러 나라에서 국익 보호라는 허울에 가린 새로운 형태의 이기주의 그리고 사회 인식의 결여를 불러옵니다.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제기하는 불의한 상황에서 여전히 많은 형제자매들이 고통 받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해도 되는 양, 과거의 성취에 만족하며 머물러 즐기고 있을 수 없습니다.
12. ‘세상을 향한 개방’은 오늘날 경제와 금융이 전용해 버린 표현입니다. 이는 외국 이윤에 대한 개방성이나 모든 나라에서 규제나 복잡한 과정 없이 투자할 수 있는 경제 권력의 자유를 배타적으로 일컫습니다. 세계 경제는 지역 분쟁 그리고 공동선에 대한 무관심을 단일 문화 모형의 강요를 위한 도구로 삼습니다. 이러한 문화가 세계를 획일화시키는 한편 개인과 나라들을 갈라놓습니다. 이러한 세계화의 진전은 대개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힘센 자들의 정체성은 강화시키는 반면, 가장 약하고 가난한 지역의 정체성은 약화시켜 더욱 힘없고 의존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 정치는 ‘분할 통치’에 열중하는 초국가적 경제 권력 앞에서 점점 더 허약해집니다.

모든 이를 위한 계획의 부족

15.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과장과 극단화와 양극화의 정치 메커니즘이 이용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이들의 존재와 생각할 권리를 부인하며, 이를 위하여 그들을 조롱하고 의심하며 가차 없이 비난하는 전략을 씁니다. 다른 이들의 진리와 가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이로써 사회는 빈곤해지고 강자들의 횡포에 예속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치는 더 이상 모든 이의 발전과 공동선을 위한 장기 계획에 관한 건강한 토론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파괴하면서 자원의 최대 효율을 이끌어 내려는 덧없는 마케팅 방법이 될 뿐입니다. 이기려고 다투는 이 저열한 싸움에서 토론은 논쟁과 대립의 상황을 유지하는 데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버림

18.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특정 부류 사람들에게 유리한 선택을 위하여 인류의 일부는 희생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가난한 이들, 장애인, 태아처럼 '아직 쓸모없는' 존재, 노인처럼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19. 노인을 고독의 슬픔에 방치하는 것과 함께 인구 고령화를 불러오는 출산율 저하는, 모든 것이 우리와 함께 끝나고 우리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은연중에 확인시켜 줍니다. 노인들은 잔인하게 버려졌습니다. 가족의 적절하고 세심한 동반 없이 노인들을 고립시키고 그들을 다른 이들에게 떠맡겨 버리는 것이 가족 자체를 해체시키고 피폐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나아가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자기 뿌리와 접촉할 기회와 또 젊음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지혜와 접촉할 기회를 젊은이들에게서 빼앗아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충분히 보편적이지 못한 인권

22. 실제로 인권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지 않다는 것이 이따금 증명됩니다. 인권 존중은 한 나라의 사회 경제 발전의 전제 조건입니다. 인간이 존엄성을 존중받고 자기 권리에 대한 인정과 보장을 받을 때에, 창의성과 진취성도 꽃을 피우고 인간의 개성으로 공동선을 위한 다양한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세계에서 인류의 일부는 풍족하게 살아가는 반면, 다른 일부는 자기 존엄을 부정당하거나 경시당하거나 짓밟히면서 그 기본권을 무시당하거나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23. 마찬가지로 여전히 전 세계 사회 구조는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4. 오늘날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 어린이와 모든 연령대의 사람이 자유를 빼앗기고 노예살이와 다름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MEMO

.....

.....

.....

.....



공동 향로 없는 세계화와 진보

30. 현대 세계에서는 한 인류라는 소속감이 약화되고, 정의와 평화를 함께 건설하려는 꿈은 시대에 뒤떨어진 이상향으로 여겨집니다. 안이하고 냉담하며 세계화된 무관심이 어떻게 지배하는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무관심은 깊은 환멸에서 비롯되는데, 그 환멸은 우리가 전능해질 수 있다고 믿으며 우리가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것을 잊은 환상의 기만 뒤에 숨어 있던 것입니다. 위대한 형제적 가치를 뒷전에 내팽개친 이러한 환멸이 일종의 냉소주의로 이끕니다. 이 환멸이나 실망의 길을 간다면 냉소주의의 유혹이 우리 앞길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고립되거나 또는 자기 자신이나 자기 이익에만 갇혀 있는 것은 결코 희망을 되찾고 쇄신을 가져오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까이 다가가는 것 그리고 만남의 문화가 희망과 쇄신의 길입니다. 고립이 아닙니다.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대립의 문화가 아닙니다. 만남의 문화입니다.

감염병의 전 세계 확산과 역사상 또 다른 재앙들

32.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 비극은 우리가 모두 같은 배를 타고 항해하는 세계 공동체라는 인식을 삼시간에 효과적으로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배 안에서 한 사람의 불행은 모든 사람에게 해가 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혼자 구원받을 수 없고 오로지 함께라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저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폭풍은 우리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우리의 일정과 계획, 습관과 우선순위를 만든 거짓되고 무의미한 확신을 밝혀냅니다.

이 폭풍으로 늘 걸치레만 신경 쓰는 우리의 '자아'를 덮고 있던 고정 관념들의 겉껍질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에게 속한다는 인식, 곧 우리가 형제자매라는 피할 수 없는 그 복된 인식이 드러났습니다.

33. 세계는 기술 발전을 활용하여 '인적 비용' 절감을 추구하는 경제로 비정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전 세계적 확산이 불러온 고통, 불확실성, 두려움, 자기 한계의 인식은 우리의 생활 양식, 우리의 관계, 우리의 사회 조직, 무엇보다 우리의 존재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라는 호소를 되올려 퍼지게 만듭니다.
36.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재화를 쏟아야 할 소속감과 연대의 공동체를 위한 공동의 열정을 되찾지 못한다면, 우리를 기만하는 전 지구적 환상이 붕괴하며 많은 이들이 고통과 공허의 손아귀에 넘어갈 것입니다.

국경 위의 인간 존엄성 부재

37. 일부 대중 영합주의 정치 체제와 자유주의 경제적 입장 모두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이주민들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합니다. 많은 이들이 전쟁, 박해, 자연재해를 피하여 달아납니다.

MEMO



커뮤니케이션의 환상

38. 또 다른 이들은 때때로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며 서구 문화에 매료됩니다. 이러한 기대는 커다란 실망으로 이어집니다. 파렴치한 인신매매범들이 흔히 마약이나 무기 밀매 조직과 연루되어 이민들의 약점을 이용합니다. 이민들은 그들의 여정에서 너무도 빈번히 폭력, 인신매매, 신체적 심리적 학대, 다른 무수한 고통을 겪습니다. 이주민들은 출신지와 단절을 겪으며, 문화적 종교적으로 뿌리 뽑혔다는 경험도 하고는 합니다. 그들이 떠난 공동체들도 가장 활기차고 진취적인 구성원을 잃고 분열되는 일이 잦습니다. 또한 가정들, 특히 부모 가운데 한 편 또는 부모 모두가 자녀들을 본국에 남겨 놓은 채 이주한 경우에 남겨진 가정들도 그러합니다. 따라서 이주하지 않을 권리를 재천명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여, 자기 조국에 머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39. 또한 이민을 받아들이는 일부 국가들에서, 이민 현상은 자주 정치적 목적으로 조장되고 이용되어 두려움과 불안을 일으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그들 자신 안에만 갇혀 있을 때에 이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은 외국인 혐오의 사고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단호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주민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사회생활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여겨지고, 그들도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타고난 존엄성을 지닌다는 사실이 망각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 자신의 구원에 능동적으로 이바지하게 해야 합니다. 아무도 그들이 인간이 아니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결정과 그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그들을 가치와 중요성과 인간성을 덜 갖춘 사람들로 생각한다는 사실이 증명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사고방식과 태도를 공유하는 일은 용인될 수 없습니다.

43. 디지털 매체는 진정한 대인 관계의 발전을 차단하면서 사람들을 중독과 고립의 위험, 그리고 구체적 현실과의 접촉을 점차 잃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몸짓, 얼굴 표정, 침묵, 몸짓 언어가 필요하며, 심지어 체취, 손의 떨림, 흥조, 땀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말이 되고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우정, 안정된 상호성, 시간을 두고 무르익는 공감대를 가꾸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디지털 관계는 겉보기에는 사회성을 띠기는 합니다. 그러나 디지털 관계는 정작 '우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대개 본모습을 감추고 외국인 혐오와 약자에 대한 멸시로 표현되는 개인주의를 확대시킵니다. 디지털을 통한 연결은 다리를 놓기에 부족하며, 인류를 일치시킬 수도 없습니다.

수치심 없는 공격성

45. 디지털 세상 안에는 막대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작용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는 은밀하게 침투하여 갖가지 형태의 통제를 실현할 수 있으며 양심과 민주적 절차를 조종하는 기제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 정보 통신 기반의 활동 방식은 흔히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도록 돕고 서로 다름을 직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폐쇄적 악순환이 편견과 증오를 조장하며 가짜 뉴스와 그릇된 정보의 유포를 촉진합니다.

MEMO





희망

지혜가 빠진 정보

49. 침묵과 주의 깊은 경청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조급하고 빠른 문자 메시지 소리로 바뀌면서 사려 깊은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구조가 위협에 놓입니다. 새로운 생활양식이 만들어져, 그 안에서 우리는 원하는 것만을 만들고 통제 불가능하거나 즉각적이고도 피상적으로 파악 불가능한 것은 모두 배제시킵니다. 이러한 역학의 내재적 논리 때문에 우리를 공동의 지혜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차별한 성찰이 방해받습니다.

굴종과 자기 비하

50. 우리는 이야기 나눔이나 온화한 대화 또는 열정적 토론 안에서 함께 진리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침묵과 고통의 순간도 수반됩니다. 그러나 개인과 민족들의 폭넓은 경험들을 끈기 있게 모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밀어닥치는 정보의 홍수는 더 큰 지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지혜는 재빠른 인터넷 검색에서 태어나는 것도 사실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많은 자료도 아닙니다. 그러한 방법으로는 진리와의 만남을 통한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화는 결국 최신 자료를 중심으로 겹돌며 그저 수평적이고 쌓이기만 합니다. 우리는 삶의 중심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통찰력 있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존재를 의미 있게 해 주는 본질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자유는 우리에게 판매되는 환상, 화면 앞에서 검색하는 능력과 혼동되는 환상이 됩니다. 형제애를 건설하는 과정은 지역적이든 보편적이든 참된 만남을 향한 자유롭고도 열린 정신으로만 나아갑니다.

54. 무시할 수 없는 이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 있음에도, 다음 장들에서 저는 많은 희망의 여정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하느님께서 계속 해서 인류에게 좋은 씨를 뿌려 주십니다. 최근의 감염병 확산으로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던져 응답한 수많은 길동무들을 다시 한번 알아보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공동 역사의 결정적 사건들을 용감하게 써내려온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엮여 있고 그들을 통하여 지탱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평범한 사람들은 의사, 간호사, 약사, 상점 종업원, 환경미화원, 요양사, 운송 종사자, 기본 서비스 제공자와 보안 요원, 자원봉사자, 사제와 수도자 등입니다. 이들은 그 누구도 혼자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55. 저는 모든 이를 새로운 희망으로 초대합니다. 희망은 우리에게 삶의 구체적 상황과 역사 조건과 무관하게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뿌리내린 실재에 대하여 말합니다. 희망은 우리에게 갈증, 갈망, 충만에 대한 열망, 성취된 삶에 대한 열망에 관하여 말합니다. 또한 위대한 것을 이루려는 열망, 우리 마음을 채워 진선미, 정의, 사랑처럼 위대한 것들을 향하여 정신을 들어 높이는 것을 이루려는 열망에 대하여 말합니다. 희망은 담대합니다. 삶을 더욱 아름답고 품위 있게 해주는 위대한 이상에 열려 있도록, 희망은 시야를 제한하는 개인의 안위, 사소한 안전이나 보상을 넘어 바라보는 법을 압니다. 희망을 품고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유혹을 받으셨다.
(루카 4, 1-13)

인간은 누구나 존엄한 존재입니다.
만약 누군가의 존엄성을 짓밟는다면
그것은 자신의 존엄성을 짓밟는 것과 같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당신의 눈에 보이는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세계화라는 이름하에 우리 모두는 이웃이 되고 있지만, 감당하기 힘들 만큼 커다란 세상에서 우리는 점점 고립되고 있습니다. 가깝게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점점 더 파편화 되어 함께하는 공동체로서의 삶은 점점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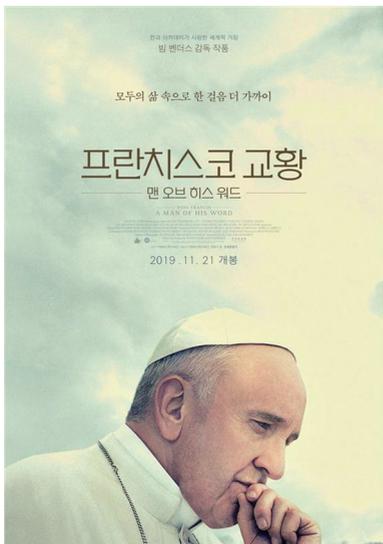
세상은 모든 이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모든 것은 다 자기하기 나름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경향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존재와 권리를 부정하며 그들을 가차 없이 비난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나의 성공은 곧 타인을 파괴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자신들의 성공을 위해 누군가는 희생될 수 있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특히 가난한 이들, 장애인, 태아, 노인처럼 힘없고 약한 이들을 그럴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모습 또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느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하느님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공경하고자 한다면, 그분께서 헐벗으셨을 때에 모른 척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바깥에서는 추위와 헐벗음으로 고통 받으시도록 내버려 두면서 성전 안에서는 그분을 비단옷으로 공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신의 목적에 맞는 사람만을 골라 이웃으로 만듭니다. 이러한 이웃에 대한 차가운 판단은 결국 치유되지 않은 상처나 용서받지 않은 잘못으로 남아 자신을 괴롭히는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한 사람을 인격체로 존중할 때, 우리는 사람으로서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서로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인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복자 알베리오네 신부님의 외침이 다 시금 들려오는 듯합니다. 모두 열심히 어디론가 향해 가고 있지만, 그 종착지가 평화일지, 우리가 희망하는 곳일지... 정보가 너무 넘쳐서일까요? 사람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소리만 들으려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진리를 얻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영화 ‘프란치스코 교황: Man of His Word’는 기도 속에 십자가로부터 울려오는 “쓰러져가는 교회를 세우라”는 소리를 들던 프란치스코 성인의 모습에서 시작합니다.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선택한 최초의 교황님으로 두 분의 모습이 겹쳐지며 교황님은 온갖 사상과 이권으로 얼룩져 쓰러져가는 교회와 세상을 향해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세월과 함께 이제 조금 노쇠해진 교황님과의 인터뷰는 그 주제에 따라 그 대상과 있었던 활동으로 넘어갑니다. 교황님은 큰 폭우로 처참하게 부서진 필리핀을 방문해 아이들의 손을 만져주고 그 피해 현장 앞에 마주 서서 기도합니다. 아이들로부터 왜 좋은 궁을 두고 작은 방에 사는지, 왜 작은 차를 타고 다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듣고, 기아와 전쟁을 피해 난민이 돼 바다를 떠도는 이들을 찾아 나섭니다.

죄수들의 발을 씻고 입을 맞추고, 가난한 아기 엄마의 발을 정성껏 닦아줍니다. 가정이 축복의 자리이지만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유쾌하게 표현합니다. 동성애자에 대한 견해를 묻는 기자에게 감히 교황님도 그들을 판단할 수 없다며 따스하게 품어주는 뉘앙스가 있다고 하십니다. 질문은 다양하고 민감하고 난감한 수준이지만 교황님은 지혜롭게 단순하게 때로는 아이처럼 웃으며 답하십니다.

언론인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대상이 종교인과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그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정치적인 답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개인적인 본인 생각을 말하십니다. 그럼에도 그 말씀이 도를 넘거나 과를 범하지 않는 것은 성령의 소리요, 공자가 말하는 지천명과 이순의 단계를 넘어 사는 까닭이 아닐까요. 그가 가는 자리는 따스해지고 유머와 웃음, 감동과 눈물이 있습니다.

사순의 시작에서 여전히 우리의 왕이요, 벗이요, 형제로 함께 살아계신 주님을 그분의 대리자 안에서 봅니다. 이 세상이 진리의 소리, 세상을 하나로 묶어줄 말씀으로 맑아지고 하나 되기를 희망합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

실천하기

‘그들만 사는 세상’에서 ‘함께 사는 세상’으로 변화하기 위해 ‘타인을 향한 열린 마음’으로 이웃에게 가까이 다가가기.